

2/4분기 확대 사목협의회 일지와 본당 부채 논의



전례분과는 6월 예수성심성월 전례에 대한 요약발표와 기획·홍보분과는 10월 13일 본당 공동체 성지순례 연중계획에 의하여 협의위원들의 성지 추천을 건의하였다. 이어 주임 신부님께서 본당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본당은 건축 부채가 많으나 건축 헌금도 계속 줄고 최악의 환경에 임하고 있다. 1. 서울대교구 중 부채가 많은 성당, 2. 고령화로 노약자가 많은 성당, 3. 분열이 심한 성당, 4.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 부정적인 성당으로, 곧 주교님께서 방문하시어 아마 많은 문제를 상담할 것이다. 구역 개편은 전번 회의에서 개편을 찬성하였으나 단 한 구역이라도 반대하면 실행하지 않겠다고 말씀드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2019년 2/4분기 확대 사목협의회를 6월 16일 (주일) 교육관 그리스도 왕 홀에서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 기도와 본당 현안에 대하여 여성구역분과, 생명·사회사목분과, 전례분과, 기획·홍보분과에 이어 주임 신부님의 말씀 있었다. 여성구역분과의 음식판매 보고와 함께 성모상 앞 그늘막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성모상 앞 그늘막은 외관상 성모님상을 가림으로 그늘막은 다른 곳에 설치하자는 의견과 생명·사회사목분과에서 거동 불편자와 노약자를 위한 교중미사 차량 봉사에 대하여는 다음 달 사목협의회까지 신심생활분과에서 가부를 결정하여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렸습니다. 구역 개편은 저의 임기 중 하지 않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차량 봉사도 안전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 신자 성지순례도 건축부채가 많은 성당에 꼭 실행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비용이 절감되고 일지와 긍정적인 행사를 본당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란 말씀과 사목회장의 '데이케어센터 옥상 방수를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자 자체로 방수 경험자를 근로봉사로 시작하여 첫 단계인 청소와 준비작업을 마치고, 비용을 약 2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내었습니다.'란 보고와 신부님의 축복으로 2/4분기 확대 사목협의회를 마쳤다.

데어케어센터 옥상 방수 1차 바닥 불순물 제거 작업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시설관리분과는 6월 15일(토) 데어케어센터 옥상 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분과 소속인 대건회와 봉사자 9명이 참여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모래와 이끼를 제거하는 작업을 그라인더 4대로 갈고, 많이 파인 곳은 몰탈 메우기 시공을 하여 1주일 이상 건조한 후 방수 우레탄 1차 하도, 2차 중도, 3차 상도로 덧칠할 계획을 세워 자연 건조시켜 시공할 계획이다.



